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루카 4,21-22)



〈예수님의 나자렛 회당 방문〉, 11세기, 채색삽화, 국립 박물관, 뉘른베르크, 독일

[제1독서] 예레 1,4-5.17-19

[화답송] 시편 71(70),1-2.3과 4ㄱㄷ.5-6ㄱㄴ.15ㄴㄷ과 17
(◎ 15ㄴㄷ참조)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웁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웁니다. ◎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12,31—13,13 <또는 1코린 13,4-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4,21-3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6] 사랑의 송가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499] 만찬의 신비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²¹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²²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²³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²⁴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²⁵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²⁶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²⁷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²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²⁹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³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성화 해설

이 작품은 교회법전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채색 삽화 가운데 하나이다. 작은 유대인의 회당에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웅기웅기 모여 앉아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계신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있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 (정용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예수님의 나자렛 회당 방문〉, 11세기, 채색삽화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결정적인 구원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듣는 고향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은총의 메시지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자도 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례는, 하느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제쳐 놓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들은 나자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당신의 갈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배척받고 돌아가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미리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신자라는 사실에 머무르다 보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행하는 데 오히려 무더질 수도 있음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성 정 바로 성당 제9대 보좌신부로 부임한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요한 1서 4,18)는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는 강두영 신부는
 이 곳 성 정 바로 성당 사목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되새긴다고 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제 서품 성구 “목마르다”(요한 19,28)

-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저는 신학교 입학은 남들보다 늦게
 했습니다. 일반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생활도 좀 하다가 신학교 입학
 한 거죠. 사실 성소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마음 속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교리교사로 봉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돌아보듯이 자신의 인생을 상상해
 보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상상해
 보니 ‘가지 않은 길 중 가장 후회되는 것이
 사제가 되지 않은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성소의 동기에는 이런 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사제가 되어 살아가는
 지금, 돌아보면 누구를 위해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제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19,28)

사제 서품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마침내 이르게 된 말씀이
 “목마르다”였습니다.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 뒤에, 십자가 위에서
 피땀마저 다 흘리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박혀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의지까지 다 봉헌한 뒤에도,
 더 줄 수 없어서, 목말라 외치는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 깊이 들어오더군요.
 사제가 된 이유, 사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거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더 늦게 신학교를 입학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더욱더 순수하게 신앙에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신앙적 순수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매순간 저를 부르신 그 분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요한 1서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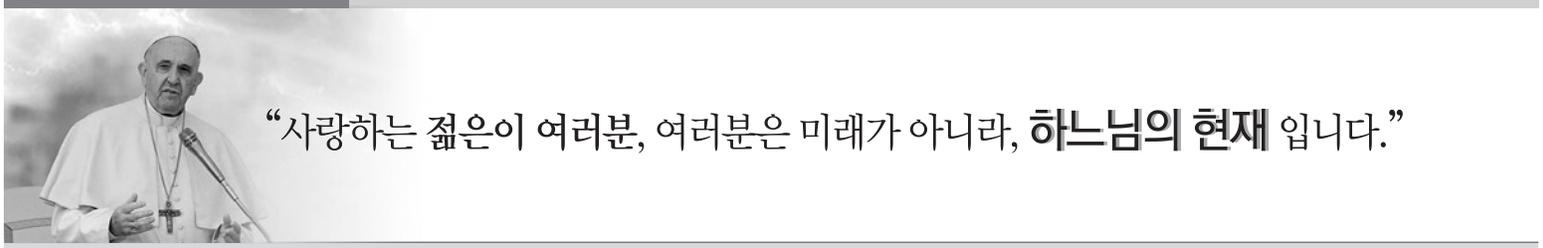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려움’이라 생각해요.

버려지는 두려움, ‘자기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멸되는 두려움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사랑이 소멸되지 않고 부활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앞에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용기와
 희망을 얻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원한 정체성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한국인과
 미국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정체성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베드로 1서 3,15)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상**[®]
주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재**입니다.”

▼▼▼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입니다!” 1월 27일 파나마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에 참례했던 약 70만 명의 청년들에게 교황은 이같이 말했다. 이 폐막미사에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포르투갈 등의 대통령들도 함께했다.

▲▲▲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presente)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l' adesso di Dio)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모으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공동체로 부르시며,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찾아 뵈러 가도록 여러분의 도시에서 부르십니다.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실현시키고 그 말씀을 듣도록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만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열정!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고 내일을 향해 인도해주시도록 맡겨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사명은 스쳐 지나가는 무엇이라거나, 우리 삶에서 “잠시 동안” 이 아니며, 단순히 세계청년대회만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내 배경음악처럼 특별히 우리를 동행해주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피앗(Fiat, “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을 그저 가능한 무엇으로 믿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으셨고 주님의 이러한 지금에 참여하시기 위해 “네” 라고 말하는 용기를 지니셨던 것입니다.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셨고, 사랑에 빠지셨으며,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맡겨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27일 성 요한 바오로2세 광장에서 제34회 파나마 WYD 폐막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분의 확실한 사랑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지속적인 “네” 라는 응답이 그 사랑에 이르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에 새로운 성령강림을 선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http://www.vaticannews.va>

2019
**세계
 청년
 대회**



파나마 세계청년대회(1월 22-27일) 가 열리는 동안 파나마시티와 그 일대는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가 됐고 청년들은 어디서든 밝은 미소로 서로를 맞이했다. 교리교육과 상설 고해성사, 성시간 등 곳곳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신앙 안에서 더욱 깊은 유대를 맺게 했다. 다음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다.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은 파나마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순례를 한 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순례 여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가톨릭신문>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3, 2019

Reading 2 | COR 12:31-13:13 *Saint Paul Teaches About Love*

IN today's second reading St. Paul tells us what real love is like. It is patient, kind, and forgiving, and it rejoices in the truth. **Love never fails!** No matter how important you are, or talented, or smart, what really makes you great is loving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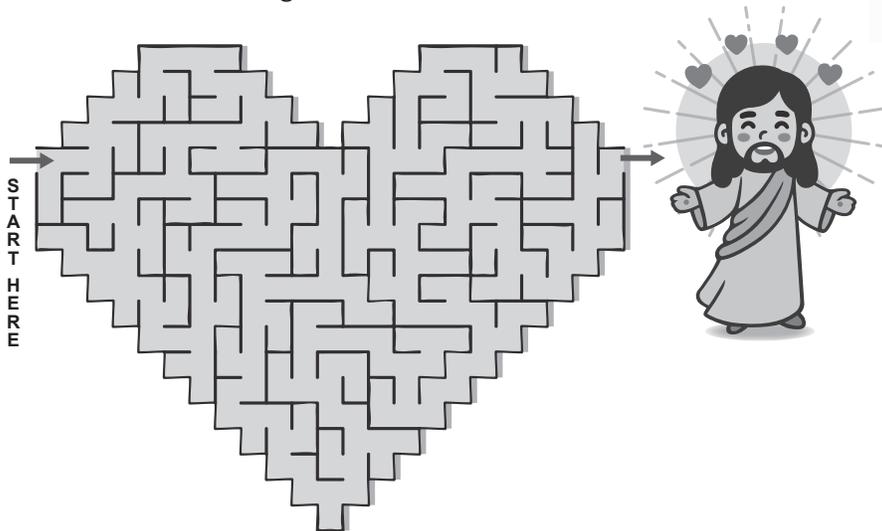
Who do you love? Can you love someone who bothers you or doesn't like you? Love isn't just a nice feeling about somebody. It means deciding to want what is best for that person. You really can love people that you don't get along with! It's a decision that you can make.

Who was the most loving person ever? Jesus! Think of how much He must have loved us to die on the cross for us even though we hurt Him by our sins. Every day tell Jesus that you love Him, and show it Him by loving the people around you. (<http://www.thekidsbulletin.com>)

Love : True or False?

Do you know what Saint Paul taught us about love? See if you know which are true and which are false, according to today's second reading...

1. Love sometimes fails. True or false?
2. If I have faith enough to move mountains but don't have love I am nothing. True or false?
3. Love is patient and kind. True or false?
4. When you love then you are mostly interested in taking care of yourself. True or false?
5. The three most important virtues are faith, hope and love, but love is the greatest. True or false?



JOIN OUR TEAM
Student Liturgy Service
 | 6th-12th grade Sunday School Student |



On Sunday, January 27th, Student Liturgy Service had its first meeting of the year. We had Liturgy training and discussed the plan for 2019 activities. Special thanks to all the parents for helping with snack preparation. We are looking forward to another exciting year of service and leadership. **To join the service, please contact Mr. John Seok.**

CONTACT Mr. *John Seok* (703) 581-3719

WHAT WE DO Commentator for the Mass, Ushers, Liturgy Readers, Mass preparations including projection set up and clean up, collection baskets, Gift bearer preparation, attendance counting and recording.

APPLICATION The application is downloadable at Parish website, under the menu of **성당공동체 > 주요단체부 > 청소년부**

ANNOUNCEMENT

1 2019 Student Confirmation Class Registration

- **Registration Period** : Sundays, **Jan. 20-Feb. 24**
- **Where** : Sunday School Office (Hasang Bldg.)
- **First Day of Class** :
Wednesday, Feb. 27, 7:40pm-9:00pm,
Hasang Bldg Room #110
- **Contact** : Mrs. *Yunchong Boyle* (703) 371-3589
spc15.re.admyc@gmail.com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님 사제 서품 기념 축하 및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님 환영식

축하드립니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의 사제 서품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강두영 암브로시오 보좌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부 주관 텃밭 만들기 세미나



‘텃밭 만들기 세미나’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27일(일) 10시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원응식 요셉 형제(농학 박사)는 텃밭의 중요성과 텃밭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모종을 만들어 싱싱한 무공해 채소를 키우는 법 등을 설명하며 씨앗과 흙으로 시범을 보였다. 또한 흙의 중요성과 좋은 흙을 만드는 방법, 채소에 물 주는 요령 그리고 간단하게 천연 농약을 만드는 방법 등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2019년 1월 울뜨레아 모임



2019년 1월 울뜨레아 모임이 지난 25일(금) 저녁 8시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마태오 복음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통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그 믿음과 행실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는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또 올 한 해 꾸리실리스타로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짐했다.

1 조상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 미사

- 미사: 2월 5일(화) 오후 8시
- 신청: 사무실

2 단체 홍보의 날

- 일시: 2월 3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각 단체를 소개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구역임원 교육

- 일시: 2월 3일(일) 오전 11:30(B-1,2)

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2월 3일(일) 오후 1시(B-1)

5 청소년 사도회

- 일시: 2월 3일(일) 오후 1시(B-3,4)

6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일시: 2월 8일(금) 오후 7:30(성당)
- 미사 후 묵주기도

7 공동체 기도회

- 일시: 2월 9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8 단체장 회의

- 일시: 2월 10일(일) 오전 11:30(B-1,2)

9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2월 10일(일) 오후 1시(B-1,2)

10 주일학교 교사회

- 일시: 2월 10일(일) 오후 1시(교무실)

11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2월 10일(일) 10시 미사 중, 미사 후 환영식(친교실 A-1,2)
- 신청 및 문의: 김창호 요한 비안네 (703)830-5473

12 2019 Work Camp

- 일정: 2019년 6월 22일(토) - 6월 28일(금)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475
- 문의: 이희준 아오스당 교감 (703)627-0799

13 2019년도 학생 건진 성사반 등록 신청 안내

- 대상: 세례-성체성사(첫 영성체)를 받은 7학년 이상
- 접수 기간: 2019년 1월 20일 - 2월 24일(매 주일)

14 2019년도 사도임원 및 본당 봉사자 피정

- 일시: 2월 17일(일) 오후 1시-4시(본당)/점심 제공(오후 12시)
- 대상: 사도임원(부장/차장), 구역봉사자, 각 단체 부장/차장, 청소년 사도회 봉사자, 제대회, 복사단, 성물부, 도서실, 한국학교장, 성인학교장, 하상 문화원장, 주일학교장, PTA
- 문의: 하진 총무 (703)376-1372

15 2019년도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안내

- 교육 일정: 3월 5일 - 6월 7일까지
- 등록 접수: 2월 17일 - 3월 3일(8시, 10시 미사 후)
- 개강일: 3월 5일(화) 오전 9:20
- 등록금: \$50(전 과목), 점심 제공
- 대상: 전 교우 및 일반인(20세이상)
- 자세한 내용과 교육 과목은 주보대에 놓인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점심 봉사자 모집

- 성인학교에서 화요일, 금요일 점심 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문의: 김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감사합니다!

초 봉헌자 추가 명단 강대성(요셉), 국치주(프란치스코), 권덕영, 권진아(크리스티나), 김현(아베스), 김기수(요한), 김남식(데이빗), 김도형, 김동우, 김동표(로무알도), 김선규(베드로), 김선배(마리아), 김세연(요셉), 김수현(안젤라), 김승경(안드레아), 김신교(요한), 김애숙(크리스티나), 김영석(마티아), 김영애(골롬바), 김영일(미카엘), 김영희(아가다)

날씨에 관한 본당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질병이나 악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승(공소예절-기도-성서읽기-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교구 웹사이트 참조)
2.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http://www.fcps.edu 참조)
3.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악천후로 인해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악천후로 인하여 바다가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2차 헌금

이번 주일(2월 3일)은 Diocesan Newspaper (교구 신문)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4주간: 1 마카 11-13, 로마 6-7

KACM TV 하이라이트

2월 7일(목) 오후 5:00-6:00
2월 8일(금) 저녁 8:00-9:00
2월 10일(일) 아침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특강: 위대한 성인들 (1) 윤원진 비안네 신부 / 바실리오, 그레고리오, 안토니오 성인의 삶과 가르침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톤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월 27일(연중 제3주일)

주일헌금 \$8,077.00
교무금 \$9,547.00
교무금(크레딧카드) \$6,787.60
특별헌금 \$200.00
2차헌금 \$2,968.00
합계 **\$27,579.6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정영금(테레사), 김영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안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틀송(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기브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권성희(소화테레사)

♥ **근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버피),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멜릭스), 윤백철(프란치스코), 주기환(말린),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레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호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월 3일(일)	연중 제4주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단체 홍보의 날 (8시/10시 미사 후, 친교실),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성모회(오후 1시, B-1)
4일(월)	연중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5일(화)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설 합동 위령미사(오후 8시, 성당)
6일(수)	성 바오로 미기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레지오 마리에(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7일(목)	연중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8일(금)	연중 제4주간	평일미사(성소를 위한 미사, 오후 7:30, 성당), 바오로 형제모임(오후 8시)
9일(토)	연중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에(오전 9:40,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2월 10일(일)	연중 제5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1,2), ME 혼인 갱신식 환영식(오전 11:30, A-1,2), 꼬미시움(오후 1시, B-1,2), 주일학교 교사회(오후 1시, 교무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운(마키엘) 703-881-115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